

7월 문화인물  
도선국사

# 전국토 만다라화... 국가안녕 기원

## 3천8백여 절·탑세워... 신라말 부패·국민불안 해소책 불법서 찾아

### 도선국사는 누구인가

# 불교에 풍수사상 융합한 선사

오늘날 남아 있는 도선국사(827~898)에 관한 자료는 상당한 양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후세인들에 의해 많이 꾸며진 것이어서 사료적인 가치는 적은 것들이다. 그 중 가장 믿을 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최유청(崔惟濟)에 의해 찬술된 백계산옥룡사 증시선각국사비명(白龜山玉龍寺贈諡先覺國師碑銘·선각국사비명 또는 도선본비·옥룡사 선각국사비로 불리기도 한다)으로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데다가 중구난방하게 퍼진 다른 자료와 달리 허구와 윤색이 가장 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비석은 남아 있지 않고 단지 그 비문의 내용만이 '동문선'에 수록되어 전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도선본비에 의하면 신라 흥덕왕 2년(827)에 태어난 도선국사의 세속의 성씨는 김(金)씨이며 영암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도감

쪽계를 받은 뒤 15년간을 운수납자로서 수행과 대중구원의 공력에 힘쓰는 한편 세상을 구제할 방도찾기에 골몰한다. 도선국사가 다시 동리산을 찾아 온 때는 37세. 이때부터 72세로 입적할 때까지 옥룡사에 주석하며 해철선사의 뒤를 이어 동리산문의 법맥을 지킨다.

**행장** 도선스님은 동리산의 법맥을 잇는 등 스님의 깊은 신앙의 근원은 깨달음을 중시한 선(禪)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그러나 한편으로 선승이라기 보다는 풍수지리의 대가라거나 우리나라 도참사상의 비조(鼻祖)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도선스님은 선종으로 개종후 3년간 공부에 몰두하다 구족계를 받은 후 전국 각지를 다니며 수행과 풍수지리설의 이론과 실재를 대조하면서 이를 익힌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다. 운봉산에서 풀을 파고 수도하기도 했으며 태백산에 움막을 치고 여름 한철을 보내기도 하는 등 두타행(頭陀行)·정반하(小欲知足)의 생활을 하는 수도승(苦行者)이었다고 한다. 이후 옥룡사에 자리를 잡고 후학들을 지도했는데 언제나 수백명의 제자들이 모여들었으며, 스님의 명망을 전해들은 현강왕은 궁궐로 초빙해 법문을 들었다고 한다. 스님이 입적하자 효공왕은 요공선사(了空禪師)라는 시호를 내렸고 제자들이 옥룡사에 정성해등탑(澄聖懸燈塔)을 세웠다. 고려의 숙종은 대선사(大禪師)를 추증하



1805년 화사 도일스님에 의해 중수된 도선국사 진영. 선암사 소장.

### 비보사탑사상(裊補寺塔思想)

도선스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보사탑(裊補寺塔)사상이다. 물론 교종에서 선종으로 개종한 이유와 풍수설을 어떤 경위로 왜 받아들였는지를 살피는 것 역시 필수적이다.

비보사탑사상은 전체 국토를 하나의 만다라(曼荼羅)로 보고 위치나 방위, 또는 11川の 지세에 따라 알맞은 곳을 택하여 3천8백여의 절(寺)·탑

사되면서 전체 사원의 비보화가 전개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도선본비와 옥룡사의 비문에는 옥룡사를 포함해 7~8개의 사찰만이 기록돼 있다.

비보사탑사상과 관련하여 풍수지리나 도참학에 의한 것이 아닌 밀교사상의 법도에 따른 불교적 사상이라는 견해와 불교의 국교적(國敎的)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도참적 호국원리

사이에서 선종이 정신적 축이 되고 있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또 당시 국가 사회적으로 격변기였던 시대상황에서 신라의 해체를 예견했던 스님은 풍수지리설을 통해 암울한 시대를 개척해 나가려는 의지를 가졌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신라왕실의 무력화와 아울러 지방에서 새로운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고, 그와 아울러 경주 중앙의 퇴폐적인 문화에 반발해 지방에서 건실한 기풍

### 산천지세 다스리는 위민·호국원리

(塔)·불(佛)·부도(浮圖)를 세우고 그곳에서 여러 보살에게 기원함으로써 기본佛인 대일여래(大日如來)와 그밖에 여러 보살의 보살력을 얻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모든 재난을 소멸하고, 복리(福利)를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사상이다.

따라서 도선스님은 비보사탑사상에 의해 백운산 내원사, 삼성산 삼막사, 조계산 선암사, 지리산 영악사, 치악산 구룡사, 운주사 등 전국에 걸쳐 많은 사찰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비보사탑사상이 확

리는 등 이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산천(山川)의 배역(背逆)에 의한 민심의 혼란을 사탑의 건립으로 다스린다는 원리로 사탑비보가 지맥에 흐르는 기운을 다스리는지, 아니면 불법에 의해 흠어진 민심을 왕업·왕실에 모으게 하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도선스님이 선종으로 개종한 이유로는 화엄종이 관념적 도담성에 빠진 채 위정자와 기득층의 전유물로 전락해가자 이에 대한 한계를 느꼈다는 점과 지방민과 호족들

의 새로운 문화가 성장하고 있었던 당시의 사회상에 대한 투철한 인식에서 국토재계획안(國土再計劃案)적인 풍수지리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선스님이 풍수설을 누구에게 전수받았는지는 확실치 않다. 중국 일행(一行)스님에게 배웠다는 설과 지리산 어느 자락에서 이인(異人)에게 배웠다는 설이 있는데 일행스님(683~727)의 생몰연대로 보나 당시 상황으로 미뤄 그가 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 827년 영암출생 15세 출가 화엄종서 수학

### 해철선맥 계승... '독특한 토지관' 큰 족적

사의 비석글에는 최초로 기록돼 있는 등 정확한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왕가의 후예라는 설도 있으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고 왕사(王師)를 추가했으며, 인종은 선각국사(先覺國師)로 추봉(追封)했다.

**기친 영향** 스님 입적후 고려에 전해지면서 정치를 비롯 일반 대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고려·조선시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풍수사상은 일반백성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민간신앙으로 자리잡아 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도선스님의 저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도선스님과 풍수설의 관계가 어떠한지는 오늘날 아직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고려시대 유행했던 비기류(秘記類) 가운데 도선스님의 저술로 전해오는 것만 해도 '도선기(道仙記)' 등 많은 수에 이르는 것만 보아도 그 저술의 진위를 떠나 고려시대에 미친 영향을 짐작케 한다.

최창조씨(전 서울대 교수)는 특히 한국 풍수에 미친 도선의 영향은 지대한 것이며 풍수사상은 우리 민족의 거의 유일한 지리사상 내지는 토지관이었고 고 평가하고 있다. (우)

## '도참승' 인식 허물고 '선승' 평가돼야

### 학계 연구현황과 과제

비보사탑설(裊補寺塔說)을 비롯한 도선스님의 풍수사상이 어떻게 어떤 연유로 펼쳐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참승으로 더 알려져 온 도선스님에 대한 위상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최병헌교수(서울대 국사학과)는 도선스님은 선승(禪僧)이며,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처음부터 다시 이뤄져야 한다 주장한다. 지금까지 참승(僧)으로 비하된 주된 이유 고려후 조선후 풍수사상과 지방 호족들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선스님을 끌어들이고 고려 태조 왕건조차도 불교의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해 도선스님과 풍수설을 연관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것.

물론 도선스님이 풍수에 조예가 깊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선승들의 대부분이 풍수지리를 습득하는 사회 풍조가 널리 퍼져 있었고 또 지금처럼 죽은 사람들의 근거지를 마련하는 음기풍수가 아닌

훌륭한 선승이라면서 참승으로 비하된 연유 역시 후대 풍수사상가들에 의해서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특히 비보사상은 철저한 불교사상이며, 선승으로서의 도선스님의 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상적, 불교적, 시대적 연구가 면밀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다.

## '양수풍수' 통해 민중구제 정치이념 제시 사료·시대상황등 종합분석 위상정립 필요

사람과 산 사람들의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양기풍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도선스님을 참승으로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김상영교수(중앙대) 역시 도선스님은 고려불교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친

양용교수(원광대)는 도선스님이 훌륭한 선승임은 분명하나 도참승이라는 또다른 성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교수는 우선 비보사상은 고려시대 도참사상이 불교와 더불어 확산되는 가운데 정리된 일련의 '호국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의 도참은 일반이 생각하는 미신차원이 아닌,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이해해야 하며 따라서 비보사탑 또한 도참적 요소는 있으나 여말선초 유적이 불교를 배척하기 시작할 때 불교를 굳게 지키고, 민중구제와 국익을 위해 결한 위민사상(爲民思想)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설명이다.

이와같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지금까지는 도선스님에 관한 연구는 초보수준으로 더욱 정확한 사료조사와 검증 및 비평가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료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격한 해석 등을 통해 학술적 가치가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를 토대로 도선스님이 변화하는 시대상황 속에서 시대를 구원하고 도탄에 빠진 민중을 구하기 위해 민의를 어떻게 수렴했으며 정치지도자들에게 어떤 구제이념을 제시했는가를 파악하는 등 당시 시대상황 속에서의 비보사상과 도참사상을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도선스님의 분명한 위상을 찾는 것이 향후 도선 연구의 올바른 방향임을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한영우 기자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 '96학년도 동산 불교 대학 신입생 모집

### 1. 대학개설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들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교육과, 성철선사의 백일법문(上, 下)을 부교재로 선택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9기생을 모집할.

### 2. 교과목 및 강사

1년 교과목	근본불교, 대승불교, 비교종교론, 불교사상론,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유식사상, 정토사상	무진정스님(전포교원장), 홍범스님(승가대교수), 오곡근(동국대교수), 최봉수(동국대교수), 김연태(동국대교수), 한보관스님(동국대교수), 정병조(동국대교수), 이만(동국대교수), 정승식(동국대교수), 박종(인성개발원장)
2년 교과목	법화사상, 화엄사상, 반야사상, 포교방법론, 불교학개론, 선종사상, 밀교사상, 불교미술	정락스님(전포교원장), 권기홍(동국대교수), 인환스님(동국대교수), 임도스님(전포교원장), 권탄준(동국대교수), 성문스님(동국대교수), 서윤길(동국대교수), 한정섭(삼학원장)

###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정규반(100명) 통산반(50명)	불교를 적극 신봉하고자 하는 자	· 인허가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병명합판사진 3매	1996년 7월 1일~7월 31일 인허가 150,000원 (교재제외)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보통)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총무원 불교회관 1층	통산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자만 가능

### 4. 개강일시

1996년 8월 31일(토) 오후 6시(총무원 1층 불교회관)

###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732-1206~8, FAX: 732-1207) (☎ 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보령각(조계사앞): (733-0333) ● 부산: 불서보급사(246-4321)
- 대구: 삼영불교서림(425-4097) ● 대전: 보문서점(257-0161)
- 광주: 금강불교대학(671-0451)

특전사항: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대한 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 지리산 반야봉 묘향대 복원불사 모연

- 최고가 되고자 하십니까?
- 최고가 된 인연을 맺으십시오.
- 최고 높은 곳에 위치한 해발 1600m의 묘향암 복원 불사의 마당으로 여러 불자님을 모뎌보려고 합니다.
- 최고 높은 곳에 항상 밝은 지혜의 등불을 켜 놓지 않으시렵니까.

### 불사할 내용

- 대 불
- 대 불보
- 부 연
- 석 재
- 탕 화
- 서까래
- 운송비(헬기)
- 10년등

88 상기 중에 불자님들의 의중에 있는 불사를 선택하여 주시면 합니다. 회향식 때 헬기 수송 예정(전화요망시) 불기 2540년 6월

대원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복원불사** 주지종업원 반야봉묘향암주명절

### 문의처 및 온라인

문의처 ☎(휴대폰) 011-628-0055

☎(0664) 782-0055

우체국 500199-0055930 이완기

농협 625-02-189313 이완기

##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귀의삼보바우고 불교인의 인연을 원하시는 불자님! 모든생은 좋은 인연으로부터 행복이 시작 됩니다. 기다림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안타까운 불자님!

### 남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자임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는 신심 깊은 불자님들의 자비를 위하여 훌륭한 배필을 만날수 있도록 성심성껏 주선해 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소중한 결혼한 삶을 영위하십시오. 결혼도 환영합니다. ● 부모님 상담 환영

대우, 초·재혼 신원 확실히 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사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 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